

중국 고문헌 기록을 통해 본 나전칠기의 기원과 전개

彭潛心 · 張慶姬*

I. 머리말

II. 고대 기록 속 ‘蠶器’

III. 唐代 기록 속 ‘寶鈿’

IV. 宋元대 기록 속 ‘螺鈿’

V. 맺음말

● 국문초록

한국과 중국은 오랜 기간 교섭하면서 양국 간의 나전칠기 기술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에 대한 한중 학계의 연구는 正史類나 개인 문집류 등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되, 양국 학자들은 주로 自國의 자료에서 출발하여 自國에 유리한 視覺으로 연구하려는 경향이 다분하였다. 그러나 나전칠기의 기원과 전개 과정을 심도 있게 연구하려면 양국 문헌을 함께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는 중국과 한국의 문헌을 동시에 참고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중국에서 나전의 기원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발생하였다. 고고학적으로는 夏대에 조개에 옷칠이 사용된 유물이 발굴되어 그 자취를 엿볼 수 있었다. 문헌적으로는 周대에 기재된 ‘蠶器’가 조개를 사용한 기물로서 나전 장식의 전신이었다.

둘째, 唐대에는 문헌에 ‘鈿鏡’ · ‘鈿貝鏡’ · ‘寶鈿鏡’ · ‘寶鈿帶’ 등과 같은 기물명들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기록에 보이는 ‘寶鈿’은 조개를 비롯한 고급 재료를 사용한 기물로서 나전칠기로 발전하는 데 토대가 되었다.

셋째, 宋元대에는 ‘螺鈿’이라는 단어가 여러 저술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나전칠기는 한국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많이 생산되고 보급되었으

* 한서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제1저자 · 한서대학교 교수, 공동저자

며 시장에서 상품으로까지 판매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중국의 고대부터 원대까지의 고문헌 기록을 통해 나전칠기의 재료인 조개에 칠을 사용한 기물과 관련된 단어나 기술적 내용의 발전과정을 분석하고 정리하여 나전칠기의 기원을 밝혀보았다.

주제어 : 중국 고문헌, 조개, 나전칠기, 기원, 蜃器, 寶鈿, 螺鈿

I. 머리말

螺鈿은 천연 조개껍질을 漆器의 표면에 박아 장식하는 공예 기법의 한 종류이다. ‘螺’는 강과 호수, 바다에 있는 소라와 조개를 가리키고, ‘鈿’은 금은보석 등을 기물에 박아 장식하는 것을 가리킨다. 특히 문헌에 의하면 『說文解字』의 주석에서 “鈿은 金華이다.”라고 언급했다.¹⁾ 『集韻』에도 “鈿은 보물을 장식한다.”라고 하였고,²⁾ 『說文新附考』에 “鈿은 寶鈿이고, 보물로 그릇을 장식한다.”라고 했다.³⁾ 이처럼 나전칠기는 천연 소라나 조개의 껍질을 층별로 떼어내거나 갈아 만든 뒤 디자인 패턴에 따라 각종 문양을 잘라서 그릇의 표면에 붙이고, 반복적으로 骨灰를 옷칠과 섞어 나전 위를 덮은 다음, 칠기의 표면을 갈아 조개껍질의 광택을 드러낸 후 무늬와 칠이 혼연 일체가 되어 거울처럼 매끄러운 효과를 내는 공예품이거나 그것을 제작하는 기법을 가리킨다. 따라서 나전칠기는 漆 바탕 위에 천연 자개가 빛나는 효과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나전칠기에 관한 중국이나 한국에서의 연구는 현존하는 유물에 대한 미적 가치나 조형적 측면에 착안한 분야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 중국의 나전칠기에 관해 가장 먼저 주목한 전문 서적은 1981년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출판한 『中國의螺鈿』부터 비롯한다.⁴⁾ 이 책은 일본의 각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중국 원대부터 청대까지 나전칠기 백여 점에 대하여 처음으로 일반에게 공개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토대로 沈從文은 『螺鈿史話』에서 세계 여러 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나전칠기 유물을 정리하기도 했지만, 이 책은 도판 설명 위주여서 역사적 맥락 속에 깊이 있는 분석에는 미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⁵⁾

한편 한국에서는 중국보다 각급 박물관에 고려 및 조선 나전칠기의 유존 사례가 많고 유물이 다수여서인지 그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다만 본고는

1) 『說文解字』, “鈿,金華也.”

2) 『集韻』, “鈿,以寶飾物.”

3) 『說文新附考』, “鈿,寶鈿,以寶飾器.”

4) 東京國立博物館, 『中國의螺鈿』, 東京: 東京國立博物館, 1981.

5) 沈從文, 『螺鈿史話』, 瀋陽: 萬卷出版公司, 2005.

문헌의 기록을 통해 나전칠기의 기원을 밝히고 그것의 변화과정을 확인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기존에 나전칠기 유물의 조형적 양식적인 연구는 논외로 한다. 본고에서 관심을 갖는 한국에서 나전칠기의 기원에 관한 연구는 1984년李宗碩이 통일신라시대 안압지에서 출토된 ‘平脫’ 유물을 나전칠기의 시원형식으로 본 데서 비롯한다.⁶⁾ 특히 그는 1985년 『한국의 미』시리즈의 도록 중 『목칠공예』를 편찬할 당시, 『三國史記』에 기록된 신라 興德王代(826-836)에 사치를 금지할 때 사용된 ‘平文’이라는 단어가 중국의 ‘平脫’과 비교되는 한국 나전칠기의 기원에 해당된다는 점을 최초로 밝혔다.⁷⁾ 이 통일신라 시기의 평문 기법을 토대로 고려 및 조선시대 나전칠기로 발전한다는 견해는 한국의 관련 분야 연구자들에게 계속 유효하다.⁸⁾

한편 중국에서 나전칠기의 기원에 대한 연구는 1981년 周全南에 의해 시작되었다.⁹⁾ 그런데 1989년 張永山은 고대 문헌에 기록된 중국의 나전칠기가 일본에서 유래하였다는 기존 학설을 부정하고 고고학적인 출토품에 의해 중국의 나전칠기는 西周에서 이미 발생했음을 밝혀냈다.¹⁰⁾ 이러한 선행 연구의 토대 위에 2007년 傅舉有는 중국 나전칠기를 원재료인 나전의 두께에 따라 薄貝와 厚貝로 나누어 그 시원과 관련 문물을 소개했다.¹¹⁾ 2011년 小林公治는 殷周대 유적지에서 출토된 나전유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塗膜과 斷面 구조를 요약했다. 이를 기반으로 唐대 나전의 성립과 편년 계보, 唐宋元代까지 나전의 변화, 조개패 색상의 시작과 그 영향, 唐대 이래 목재 백골 위에 나전을 장식한 실태, 중국과 동남아 및 남아시아 나전칠기와의 관계를

-
- 6)李宗碩, 「韓國 古代 漆器 研究-三國時代 및 統一新羅時代를 중심으로」,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83, 62~66면.
 - 7)李宗碩, 「三國 및 統一新羅時代의 木漆工藝」, 『韓國의 美 24』木漆工藝, 중앙일보·계간미술, 1985, 178~179면.
 - 8)金三代子, 「文獻으로 본 나전칠기의 始原」, 『考古歷史學志』 16, 고고역사학회, 1993, 497~509면; 李瓏姬, 「朝鮮時代 螺鈿漆器 研究」,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3; 최영숙, 「高麗時代 螺鈿漆器 研究」, 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8; 최영숙, 「고려시대 나전칠기 연구」, 『미술사학연구』 15, 한국미술사학회, 2000, 75~108면; 조현경, 「고려시대 나전칠기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 논문, 2000; 김은정, 「고려시대 나전칠기의 문양 및 제작기법 연구」, 『강좌미술사』 40, 한국미술사연구소, 2013, 59~94면.
 - 9)周全南·叶琦楓, 「螺鈿源流」, 『故宫博物院院刊』, 北京故宫博物院, 1981, 53~58면.
 - 10)張永山, 「螺鈿起源試探」, 『華夏考古』,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1989, 110~112면.
 - 11)傅舉有, 「厚螺鈿漆器—中國漆器螺鈿裝飾工藝之一」, 『紫禁城』, 北京故宫博物院, 2007, 118~129면; 傅舉有, 「薄螺鈿漆器—中國漆器螺鈿裝飾工藝之二」, 『紫禁城』, 北京故宫博物院, 2008, 136~147면.

비교 연구하였다.¹²⁾ 같은 해에 張飛龍은 나전칠기 공예의 원천을 개관한 바 있다.¹³⁾

따라서 본고는 그동안 나전칠기에 관한 중국 내 연구 성과의 토대 위에서 고대부터 송원대까지의 사료를 분석하고, 문헌 기록을 통합하여 나전칠기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탐색하여 이 분야의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고대 기록에 보이는 ‘蜃器’

중국에서 나전칠기의 기원은 고고학적 발굴 성과에 의하여 夏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중국의 문헌 중 나전칠기에 관련된 단어가 발견되는 문헌은 주대부터 비롯한다. 『周禮·地官·掌蜃』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각종 蜃物의 수집을 책임지고, 무덤을 함께 쌓은 蜃, 제사는 蜃器로서의 蜃, 흰 벽을 미화한 蜃이 있다.”고 한다.¹⁴⁾

후한 말기의 유학자인 鄭玄은 “蜃의 기물은 蜃로 장식하는데 그 이름이 여기에 있다.”라고 했고,¹⁵⁾ 『說文解字』에 수록된 단어 중에는 “蚌은 蜃이다.”라거나 “蜃은 大蛤이다.”라고도 했다.¹⁶⁾ 두 문헌에 의해 대합조개 ‘蜃’은 자개의 재료와 관련이 있으며, 앞서 “각종 蜃物 수집을 책임지고,”라는 문장에서 보이는 ‘蜃物’이나 ‘蜃器’는 조개껍질이나 조개류로 장식된 기물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특히 ‘蜃器’라는 단어는 이후 남송대 羅願이 다시 한 번 언급하지만, 그는 여기에서 정현과는 전혀 다른 견해를 제시했다.

“蜃器의 蜃, 鄭司農(鄭玄의 호)은 蜃이 기물을 하얗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蜃의 색깔은 하얗기 때문에 蜃의 가루로 기물을 칠했다.” 羅願은 “司農은 그것

12) 小林公治·盧丁, 「中國螺鈿史研究情況與課題-以亞洲螺鈿史建設為目標」, 『中國生漆』, 中华全国供销合作总社西安生漆涂料研究所, 2011, 4~13面.

13) 張飛龍, 「中國硬木螺鈿鑲嵌工藝溯源」, 『中國生漆』, 中华全国供销合作总社西安生漆涂料研究所, 2011, 34~40面.

14) 『周禮·地官·掌蜃』, “掌斂互物蜃物, 以共闡墻之蜃, 祭祀共蜃器之蜃, 共白盛之蜃.”

15) 『說文解字』, “蜃之器, 以蜃飾, 因名焉.”

16) 앞의 책, “蚌, 蜃屬.”; “蜃, 大蛤.”

이 기물을 하얗게 칠해서 흰색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다. 사실 조개껍질을 잘라 기물에 박아 무늬로 장식하는 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나전이다.”¹⁷⁾

위 글을 통해 鄭玄은 조개가루를 기물에 장식하여 기물의 색깔을 하얗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하지만 羅願은 鄭玄의 해석이 적절하지 않다며 蜃器는 조개·조개류의 껍질을 잘라서 기물에 박아 넣는 문양의 한 종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즉 대합조개는 당시 나전용 자개의 한 종류였다. 이것은 문헌 기록과 고고학적 발견을 결합하여 주나라 제사에 사용된 蜃을 장식하는 ‘蜃器’는 바로 조개를 장식한 칠기로서 후대 학자들이 나전칠기에 대해 정의한 것에 부합된다.

이를 입증할 고고학적 유물을 보면 베이징 房山 琉璃河 유적지 西周墓 M1043에서 이른 시기의 蜃器가 출토되었다. 〈彩繪獸鳳鳥紋螺鈿漆壘〉(〈그림 1, 1-1〉)은 2mm 미만의 두꺼운 조개껍질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상감한 西周시대의 유물이다.¹⁸⁾ 이 유물은 칠기 표면에는 장방형·원형·삼각형 및 기타 불규칙한 형상으로 조개껍질을 잘게 절단하여 짐승이나 봉황 등의 문양을 조합하여 특정한 의미를 표현했다. 물론 고고학적 발굴로 출토된 상주시기의 나전칠기는 보존상태가 좋지 않아 木胎는 이미 썩어 조개 장식만 남아 있는 朱漆에 자개를 결합시킨 구체적인 산물이다. 그동안 칠기 연구자들에 의하면 나전칠기는 唐나라 때부터 기원한다는 것이 정설이었었는데, 칠기 표면에 자개를 붙인 이 유물의 출토로 나전공예가 西周시기에 시작되었음을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유물은 나전칠기의 기원을 연구하는 데 있어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¹⁹⁾

또 다른 경우로는 山東省 滕州 前掌 大商代墓에서도 〈嵌蚌漆牌飾〉이 출토되었다(〈그림 2, 2-1〉).²⁰⁾ 이 유물은 의례 때 王侯를 위해 연주하는 악기의 일종인 ‘鼉鼓’의

17) 羅願, 『爾雅翼』 31卷, 景印文淵閣四庫全書 222卷,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506~507面. 「爾雅翼·釋魚·蜃」, “蜃器之蜃, 鄭司農(鄭玄)以為蜃可以白器, 另色白, 蓋謂以灰飾之雲爾.” “司農以為白器令色白者, 亦似未當. 蓋剗殼錯入器中, 合為文彩, 如今所謂螺鈿器之類.”

18)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北京市文物工作隊琉璃河考古隊, 「1981~1983 年琉璃河西周燕國墓地發掘簡報」, 『考古』,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84, 404~416面.

19) 殷璋璋, 「記北京琉璃河遺址出土的西周漆器」, 『考古』,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84, 449~453面.

20)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山東工作隊, 「滕州前掌大商代墓葬」, 『考古學報』,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92, 365~371面.

일부이다.²¹⁾ 鼉鼓의 잔존한 부분을 보면 朱漆 위에 두께 1~1.5mm의 작은 조개껍질이 박혀 짐승의 머리를 형상화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얇고 가늘게 조개껍질을 절단하는 기술이 상당히 수준 높고, 문양은 당시 유행하던 饕餮紋을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彩繪獸鳳鳥紋螺鈿漆罍〉, 서주, 베이징 방산 유리하 M1043서묘 출토



〈그림 1-1〉〈彩繪獸鳳鳥紋螺鈿漆罍〉측면



〈그림 2〉〈嵌蚌漆牌飾〉, 서주, 산둥성 등주 전장 대상주서묘 출토



〈그림 2-1〉〈嵌蚌漆牌飾〉부분

칠기에 조개 껍질이 아닌 돌조각을 박은 유물은 내몽고 赤峰大甸子에 위치한 30여 기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다.²²⁾ 〈觚形幾〉나 〈筒筒形幾〉 등과 같은 유물은 안팎에 朱漆

21) 洪石, 「鼉鼓逢逢: 滕州前掌大墓地出土“嵌蚌漆牌飾”辨析」, 『考古』,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2014, 86~94面.

을 하고 가공된 綠松石片이 박혀 있는데, 이 또한 기술적인 면에서는 나전칠기의 시원 형식이다.

한편 周나라에서 蜃器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 조개껍질은 ‘掌蜃’이라는 관서가 담당 하였다. 掌蜃은 蜃의 수집과 공급을 맡은 관청인데, 여기에는 下士 2명, 물자 수집을 담당하는 관리[府] 1명, 史 1명, 일반 잡역[徒] 인원 8명을 배속하였다.²³⁾ 이렇게 관청에 소속된 전문적인 인원이 관리와 제작을 맡았다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당시 조개껍질은 비교적 귀중한 재료이면서 사용량 또한 많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蜃器’라는 단어 이외에 주대 문헌에서는 왕의 주위에 4가지 서로 다른 재료로 만든 ‘幾’라는 기물을 설치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華玉幾, 漆幾, 文貝幾, 雕玉幾, 왕은 幾를 그의 좌우에 놓아 자신의 존귀함을 나타냈다.”²⁴⁾

4가지 기물 중 주목되는 것이 ‘文貝幾’이다. 단어 자체로 미루어 볼 때 이미 西周시대의 장인들은 조개껍질을 박아 기물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칠기나 옥기와 구별해서 표기한 것이 확인된다.²⁵⁾

이처럼 중국이 칠기에 조개껍질을 장식하는 기법은 夏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나전의 원류는 西周까지 올라갈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²⁶⁾ 특히 서주시대에 나라의 제사는 당시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제사도구인 ‘蜃器’는 조개껍질로 장식한 칠기가 국가의 제기로 사용되었다는 면에서 다른 기물보다 존귀한 사회적 지위를 가졌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22) 中国社会科学院考古研究所, 「大甸子-夏家店下层文化遗址与墓地发掘报告」, 北京: 科学出版社, 1996, 35~36面.

23) 允祿等奉敕撰, 『欽定禮記義疏』 78卷, 景印文淵閣四庫全書 126卷,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519面. 『周禮·地官·敘官』, “掌蜃, 下士二人, 府一人, 史一人, 徒八人.”

24) 앞의 책, 519面. 『尚書·周書·顧命』, “四幾曰: 華玉幾, 漆幾, 文貝幾, 雕玉幾, 王設幾於左右, 優至尊也.”(範淑英, 「唐代螺鈿鏡的定名及其工藝內涵」, 『考古與文物』, 陝西省文物考古研究所, 2014, 89~94面. 재인용).

25) 張永山, 「螺鈿起源試探」, 『華夏考古』, 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1989, 109面.

26) 高橋隆博·韓昇, 「唐代與日本正倉院的螺鈿」, 『學術研究』, 廣東省社會科學聯合會, 2002, 85面.

그러나 西周가 멸망하고 禮樂制度가 사라지면서 원래 西周 왕실 등 상류층에 특별히 제공되던 고급 제기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때문에 주나라 문헌에 등장하던 ‘蜃器’는 춘추시대 초기 문헌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掌蜃’을 담당하던 관청이나 제작기구 및 관원 등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기능이 없어져 장식 제기의 생산도 중단되었다. 그로 인해 이후 ‘蜃器’와 같은 조개껍질을 장식한 제기는 점점 쇠퇴했고 역사적으로 잊혀지게 되었다. 春秋战国 시대 문헌에서 조개 장식과 관련된 것은 屈原이 쓴 『九歌·河伯』에 “하백이 살고 물고기 비늘로 지붕을 장식하고 집안에 교룡 무늬가 그려져 있으며 주칠로 장식된 궁전 문기둥에 조개껍질이 박혀 있다.”는 글귀에서만 발견될 뿐이다.²⁷⁾ 이 글은 신의 궁전을 노래한 시로서 문장이 과장되고 현실성이 없지만 당시 건축에 자개 장식과 주칠의 사용을 엿볼 수 있다.

이후 漢대 문헌에 기록된 나전 관련 기물 또한 지극히 드물었다.²⁸⁾ 주요 원인은 생산기술의 발달로 칠기의 장식에 금은보석 등 다종다양한 재료가 활용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자개류는 원래의 중요한 지위를 잃으면서 잊혀진 것이다.

이후 5세기의 『南史·庾易傳』에 이르러 조개에 관한 기록이 다시 나온다.

“安西長史 袁象은 그의 품골에 감복하여 사슴뿔, 책꽃이, 蚌盤, 蚌研, 象牙로 만든 붓을 증정하였다.”²⁹⁾

당시 안서장사였던 袁象(447~494)은 그 지역에서 활동하던 庾易(?~495)를 만나 교유를 하면서 그의 품격에 감복하여 그에게 여러 종류의 선물을 주었다. 이때의 선물에 포함되어 있는 ‘蚌盤’과 ‘蚌研’는 민물조개[蚌]로 만든 쟁반과 베틀이다. 이것들은 南北朝 시기(420~589)에도 사용된 기록이 있다.

27) 屈原, 『九歌·河伯』, “魚鱗屋兮龍堂, 紫貝闕兮朱宮.”(張飛龍, 賀娜, 宋瑞雪, 李豔, 任紅豔, 「先秦古建築髹飾藝術文化記憶管窺」, 『中國生漆』, 中華全國供銷合作社西安生漆塗料研究所, 2020, 9面. 재인용).

28) 沈從文, 앞의 책, 9面. 그는 나전공예가 미술사에서 한동안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문헌에 따르면 시대가 좀 이르거나 전한 무제에서 성제에 이르렀을 때 갑옥과 보석을 종합적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한대 시문에서 모두 자주 언급되었다.” 金銀·珠玉·綠松石·루비(紅寶石)·水晶·瑪瑙 그리고 玳瑁는 발견되었으나 조개를 사용한 사례는 보기 드물다.

29) 『資治通鑑』, 陳武帝 永定 3年. “安西長史袁象欽其風, 贈以鹿角書格, 蚌盤, 蚌研, 白象牙筆.”

“陳武帝는 천성이 검소하고 소박하며 음식이 몇 가지를 넘지 않는다. 개인 연회에는 瓦器, 蚌盤에 담은 음식과 과일을 충분히 먹으면 된다. 후궁에는 金翠 장식이 없고 女樂은 공연하지 않는다.”³⁰⁾

陳武帝(503~559)는 검소함을 숭상하여 연회를 할 때에도 ‘蚌盤’ 등 소박한 기물만 사용했다고 전한다. 이 때문에 사치스러운 7세기 唐代에 진 무제를 찬양하는 시가 다수 보인다. 먼저 孫元晏은 시문에서 “금이나 물총새를 실로 삼은 것은 조금 불편하다. 蚌盤으로 잔치를 베푼 뜻은 어떠한가?”³¹⁾라면서 진 무제를 떠올렸다. 杜光庭은 「皇帝周天醮詞」에 이르기를 “기와그릇과 蚌盤을 잊지 못합니다. 뿔의 머리와 호랑이의 기백, 즐기러 올 수 없다.”³²⁾라고 했다. 이러한 단어로만 보면 조개껍질을 사용한 쟁반으로 보이지만, 송원대 사학자인 胡三省은 “蚌盤은 조개껍질을 장식한 것으로 지금은 나전이라고 부른다.”라는 주석을 달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조개껍질을 장식한 ‘蚌盤’이라는 칠기를 후대인들은 나전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비록 ‘蚌盤’이 조개껍질로 만든 접시이긴 하지만, 조개의 표면을 매끈하게 다듬어 상감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후세의 나전칠기와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Ⅲ. 唐代 기록 속 ‘寶鈿’

당나라 때에 조개껍질을 장식한 칠기에 대해서는 ‘寶鈿’이라고 불렀다. 앞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당나라의 시인들은 陳武帝의 청렴함을 시로 읊으면서 당시의 사치풍조를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화려함을 숭상하는 사회 풍조에 영향을 받아 나전칠기는 더욱 만연하게 되었다. 일본의 正倉院에 소장되어 있는 〈나전대모팔각함〉이나 〈나전자단비파〉 등을 보면 나전 기술이 뛰어나,

30) 앞의 책. “(上)性儉素, 常膳不過數品, 私宴用瓦器, 蚌盤, 殼核充事而已; 後宮無金翠之飾, 不設女樂.”

31) 孫元晏, 「詠史詩·陳武帝蚌盤」, “金翠絲黃略不舒, 蚌盤清宴意何如?”(張飛龍, 「中國硬木螺鈿鑲嵌工藝溯源」, 『中國生漆』, 中華全國供銷合作總社西安生漆塗料研究所, 2011, 37面. 재인용).

32) 杜光庭撰, 董恩林點校, 『廣成集』卷11, 北京: 中華書局, 2011, 162~163面. 杜光庭, 「皇帝周天醮詞」, “瓦器蚌盤, 敢忘於刻已, 雉頭虎魄, 豈事於娛情.”

당나라 나전 공예가 성숙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중국 당나라 시에는 나전과 관련된 ‘鈿鏡’이라는 거울이 자주 언급된다. 溫庭筠의 시에서 “霞帔를 두르고 구름을 머리에 인, 鈿鏡의 아름다운 형태는 눈과 같다.”³³⁾고 노래하고 있다, 李賀의 시 또한 “鈿鏡에는 외로운 까치가 날아오르고, 강을 그린 그림에는 물이 넘실거린다.”³⁴⁾라고 하였다. 이처럼 나전거울에는 다채로운 문양을 새긴 것이 확인된다.

기록에 의하면,

(1) “鈿과 寶鈿은 보물로 장식하고, 또 그 음은 田이다.”³⁵⁾

(2) “鈿은 金으로 무늬[花]를 장식하고, 조개[蚌]를 파고 넣는[陷] 것은 ‘螺鈿’이라고 부른다.”³⁶⁾

(3) “鈿은 보석같은 조개[貝]로 그릇을 장식한 것이다.”³⁷⁾

(4) “나전의 광채로 거울의 뒷면을 장식할 수 있다.”³⁸⁾

‘鈿’은 금이나 보석으로 장식하는 것이고, ‘螺鈿’은 조개껍질을 상감하는 것이다. 나전 기법으로 거울을 장식하여 제작한 銅鏡은 ‘鈿鏡’이나 ‘寶鈿鏡’이라고 불렸으며 이것들은 모두 ‘螺鈿鏡’에 속한다.³⁹⁾ 예컨대 安祿山(703~757)은 750년(天寶 9)에 당 玄宗(712~756)으로부터 보전경 1개를 하사받았다.⁴⁰⁾ 그밖에 당 현종은 蕃客에게 ‘寶鈿帶’나 ‘金鈿帶’를, 拔悉蜜 사자에게 ‘金鈿帶’를,⁴¹⁾ 또 皮邏閣를 雲南王으로 책봉하면서 ‘金鈿帶’ 7개를 하사하였다.⁴²⁾ 이처럼 당시 황제가 하사한 ‘鈿鏡’·‘寶鈿

33) 中華書局編輯部點校, 『全唐詩: 增訂本』, 891卷, 北京: 中華書局, 1999, 10136面.

34) 앞의 책, 4422面. 李賀, 「惱公」: “鈿鏡飛孤鵲, 江圖畫水荇.”

35) 佚名, 『原本廣韻』236卷,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158面. “鈿, 寶鈿, 以寶飾器, 又音田.”

36) 毛晃增注, 『增修互注禮部韻略』, 『景印文淵閣四庫全書』237卷,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386面. “鈿, 金花飾, 又陷蚌, 曰螺鈿.”

37) 앞의 책, 518面. “鈿, 以寶貝飾器.”

38) 羅願, 『爾雅翼』31卷, 『景印文淵閣四庫全書』237卷,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506面. 「爾雅翼·釋魚·羸」, “螺鈿光彩可飾鏡背.”

39) 周全南·葉琦楓, 「螺鈿源流」, 『故宮博物院院刊』, 北京故宮博物院, 1981, 56面. 周全南과 葉琦楓은 寶鈿이라는 단어에 螺鈿이 포함된다고 여긴다.

40) 姚汝能, 『安祿山事蹟·상권』,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3, 9面.

41) 歐陽修, 『新唐書』217卷 下卷, 北京: 中華書局, 1975, 6143面.

鏡·‘寶鈿帶’·‘金鈿帶’등은 그 명칭으로 미루어 볼 때 모두 나전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는 공예품으로 간주된다.

한편 敦煌에 있던 각종 기록 중 당나라 때의 문서에서 ‘鑲貝鏡’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821년 沙洲[현재의 敦煌]의 승려 龍將이 작성한 「牒文」에 의하면, 출가 전 그의 이름은 齊周였는데 吐蕃軍에 붙잡혔다가 이후 僉牟使가 점검하러 왔을 때 부하인 梁舍人에게 ‘鑲貝鏡’을 뇌물로 건네어 승려로 출가할 수 있었다.⁴³⁾ 또 莫高窟 제144굴 供養人 제기에는 “管內釋門 都判官이 龍興寺의 상좌 용장을 맡아 선대의 공덕을 닦고 영원히 공양한다.”⁴⁴⁾고 했고, 그의 속성은 ‘索’으로 추정되는 이 지역 명문가였다.⁴⁵⁾ 이러한 여러 기록을 통해 돈황 144굴의 굴주인 용장 스님은 돈황 지역의 명문가 출신으로서 토번군에게 포로로 붙잡혔다가 ‘鑲貝鏡’을 뇌물로 주고 풀려나 출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鑲貝鏡’은 명문가 자제를 포로에서 풀어낼 정도로 매우 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鑲貝鏡’에 사용된 ‘鑲’자와 관련해서는 다음의 기록이 참고된다.

“‘鈿’이라는 글자는 ‘亭’자와 ‘年’자 두 글자의 발음이 결합되고, 금으로 무늬를 장식한 것은 ‘鑲’이라고도 부른다. ‘堂’자와 ‘練’자 두 글자의 발음이 결합되고 보물로 기물을 장식하여, 문자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으나 발음은 같다.”⁴⁶⁾

이를 통해 ‘鑲’자와 ‘鈿’자의 두 글자는 의미가 같으면서 독음이 일치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록에 보이는 ‘鑲貝鏡’은 바로 ‘鈿貝鏡’이고, ‘鈿貝鏡’은 ‘나전거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⁴⁷⁾

42) 앞의 책, 222卷 下卷, 「南蠻傳·上」, 北京: 中華書局, 1975, 6270面.

43) 黃永武, 『敦煌寶藏』 130卷, 臺北: 文新豐出版公司, 1985, 542面. 敦煌文獻 3774號, 「丑年(821) 12月 沙洲僧 龍藏牒」 “至閭開府上, 大番兵馬下, 身被捉將, 經三個月, 卻走, 來在家中潛藏六個月. 齊周諮上下, 始得散行, 至僉牟使算會之日, 出鑲貝鏡一面與梁舍人, 附在尼僧腳下.”

44) 敦煌研究院, 『敦煌莫高窟供養人題記』, 北京: 文物出版社, 1986, 66面.

45) 劉志安, 「唐朝吐蕃佔領沙洲時期的敦煌大族」, 『中國史研究』, 1997, 03, 86-87面.

46) 司馬光, 『類編』 40卷, 景印文淵閣四庫全書 225卷,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464面. “鈿, 亭年切, 金花飾, 亦做鑲. 又並堂練切, 以寶飾器, 文二重, 音一.”

47) 趙靜蓮, 「敦煌疑難名物詞語考釋五則」, 『中國典籍與文化』, 教育部全國高等院校古籍整理研究工作

당 현종 이후 조정에서는 여러 차례 사치스러운 공예품에 대해 금지령을 내렸는데, 이때 나전기물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당시 이렇게 보전의 사용을 국가적으로 금지했다는 것은 당시 나전이 매우 진귀한 기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1) “准式에 따라 珠玉·寶鈿·平脫·金泥·織成·刺繡 등을 모두 금단한다.”⁴⁸⁾

(2) “朕의 사상은 소박하고 검소하여, 순풍에 따라 반드시 약속하고, 엄격하게 규정하여 사치스럽고 속되게 하여, 그 주옥·器玩·寶鈿·雜繡 등 모든 것을 금지하였다.”⁴⁹⁾

(3) “먼저 床榻을 만드는데 金筐·瑟瑟·雜寶鈿·真珠·마노로 장식하는 것을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⁵⁰⁾

위 기록에 의하면 나전의 기법에 해당되는 ‘寶鈿’이나 ‘平脫’ 및 ‘雜寶鈿’과 같은 명칭이 확인된다. 이를 통해 이 시기에 나전은 사치품으로 인식될 정도로 고급 기물이었고, 그것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국가에서 금지령을 법제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나전은 唐·五代 시기에는 불교 신도들이 대장경을 담아두는 經函을 대량으로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이렇게 만든 경함들은 주로 나전으로 상감되어 정교하고 화려하였다.

한편 당나라 때 ‘寶鈿’과 마찬가지로 사용된 단어에 보물로 장식한 ‘寶裝’이 있다.⁵¹⁾

“해마다 敕使는 香花寶蓋·真珠幡蓋·佩玉寶珠·七寶寶冠·金縷香爐·大小明

委員會, 2012, 59~64面. 趙靜蓮은 鈿貝鏡을 자개거울이라고 생각한다.

48) 王欽若, 『冊府元龜』 56卷, 「帝王部·節儉」, 北京: 中華書局, 1982, 626面. 肅宗至德二年(757)十二月詔, “准式, 珠玉, 寶鈿, 平脫, 金泥, 織成, 刺繡之類一切禁斷.”

49) 王欽若, 『冊府元龜』 56卷, 「帝王部·節儉」, 北京: 中華書局, 1982, 627面. 廣德二年(764)二月乙亥, 南郊禮畢, 敕曰. “朕思素儉敦, 以淳風必約, 嚴章以齊侈俗, 其珠玉, 器玩, 寶鈿, 雜繡等一切禁斷.”

50) 李昉, 『文苑英華』 439卷, 北京: 中華書局, 1966, 2221~2222面. 「誅逆人蘇佐明德音」, “悉先造供禁中床榻, 以金筐瑟瑟雜寶鈿, 真珠瑪瑙裝飾, 宜停造.”(範淑英, 앞의 논문, 91面. 재인용).

51) 陸錫興, 「名物新證」, 『南方文物』, 江西省文物考古研究院, 2008, 57面. 陸錫興은 ‘寶鈿’을 ‘寶裝’이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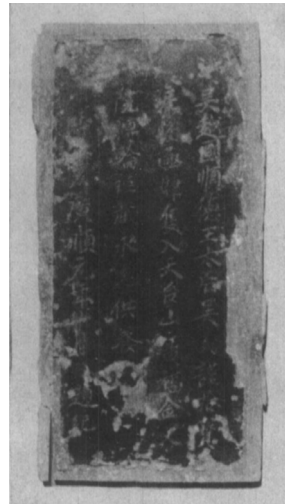
鏡·花毯白氈·珍假花果 등을 보내지 말라고 하였는데, 점점 쌓이고 쌓여 있다
…… 寶裝之鏡의 크기는 그 수를 모른다.”⁵²⁾

이렇듯 당나라 때에는 나전칠기가 제작되었는데 그와 관련되는 유물은 일찍부터 일본에서 전세되고 있었다. 756년(천평 8)에 聖武천황이 남긴 진귀한 보물을 光明황후가 東大寺에 봉납할 때의 목록인 〈國家珍寶帳〉을 보면 ‘螺鈿紫檀琵琶’, ‘螺鈿紫檀阮咸’이라는 기물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로 미루어 당나라 때에는 ‘나전’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를 증명하는 또 다른 사례로 1986년 浙江省 湖州 飛英塔에서 발굴된 五代시기에 제작된 나전경함이다(〈그림 3, 3-1〉).



〈그림 3〉〈螺鈿經函〉, 浙江省 湖州 飛英塔, 五代,
湖州博物館 소장



〈그림 3-1〉〈螺鈿經函〉 명문 부분
세부

52)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3卷,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118面. “每年敕使別送香花寶蓋, 真珠幡蓋, 佩玉寶珠, 七寶寶冠, 金縷香爐, 大小明鏡, 花毯白氈, 珍假花果等, 積漸已多 …… 寶裝之鏡, 大小不知其數矣.”(範淑英, 앞의 논문, 91面. 재인용).

해당 나전경함의 외곽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제작 시기와 공납자와 기물의 종별 수량 및 제작기법을 알 수 있다. 명문의 내용은 “辛亥年 廣順 元年 10월일”에 “吳越國의 順德王太后 吳氏가 寶裝經函 4개를 삼가 바친다. 天臺山 廣福金文院에 轉輪經藏을 영원히 공양한다.”라는 명문이 함께 새겨져 있었다.⁵³⁾ 명문에 의해 951년(광순 1) 10월에 오월국의 순덕왕태후가 나전경함 4개를 바쳐 法寶供養을 실천했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이 시기 문헌에 기록된 ‘寶裝’이라는 단어가 바로 ‘寶鈿’ 혹은 ‘나전’ 등을 포괄하는 용어라는 사실도 알게 한다.

당나라에서는 거울에 자개를 박은 동경을 ‘鈿鏡’, ‘鈿貝鏡’, ‘寶裝鏡’ 등이라고 불렀지만, 이것은 고대처럼 단일한 조개편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표면을 가공하고 무늬를 오려서 상감하여 ‘鈿鏤之工’으로 불렸다는 것도 확인된다.

(1) 少府監에서 “각 작업장의 직종에 대한 교육은 그 작업량의 다소와 난이도에 따라 학습하게 하는데, 작업량이 많고 난이도가 높은 것은 4년 또는 3년, 그 다음이 2년, 최소 40일, 그 작업휴식 정도에 따라 설정한다.”⁵⁴⁾

(2) “鈿鏤工藝는 4년간 가르쳤다.”⁵⁵⁾

위 기록을 통해 당나라 시기에 황실에서 사용할 공예품을 전문적으로 제작했던 관청인 少府監에서는 장인들에게 공예 기술을 교육시키기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공예교육은 기술의 난이도에 따라 전습기간을 4단계로 구분해서 4년, 3년, 2년, 40일로 세분되어 있었다. 그중 나전을 아로새기는 鈿鏤工藝는 세부 기술이 까다롭고 복잡하여 학습 시간이 가장 긴 4년에 해당되었다. 주지하다시피 鈿鏤工藝에 사용되는 재료의 대부분은 귀중한 금은옥석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들의 재질적 특성을 익히는데 충분한 시간이 요구된다. 이것들을 다루어 상감하거나 조각하는 정교한 기술까지 습득하여 특정 기물을 제작하려면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53) 湖州市飛英塔文物保管所, 「湖州飛英塔發現一批壁藏五代文物」, 『文物』, 文物出版社, 1994, 56면. “吳越國順德王太后吳氏謹拾(舍)寶裝經函肆只入天臺山廣福金文院轉輪經藏, 永充供養. 時辛亥廣順元年十月日題紀”.

54) 李林甫, 『唐六典』 22卷, 「百官志」, 少府條, 北京: 中華書局, 2005, 572면. “凡教諸雜作, 計其功之眾寡與其難易而均平之, 功多而難者限四年, 三年成, 其次二年, 最少四十日, 作為等差, 而均其勞逸焉.”

55) 歐陽修, 『新唐書』 48卷, 「百官志」, 少府條, 北京: 中華書局, 1975, 1269면. “鈿鏤之工, 教以四年.”

이처럼 문헌 기록과 실물 자료를 보면 당나라 시기의 나전공예는 목칠기, 금은기, 동칠기, 옥석기 등 다종다양하게 적용되는 명칭은 鈿鏤工藝였고, 해당 공예에 쓰이는 범칭은 ‘寶鈿’이었다.

IV. 송원대 기록 속 ‘螺鈿’

北宋시기에는 일본에서 제조한 나전기물이 중국에 수입되었다. 송 태종 988년(단공 원) 일본국에서 보내온 공물을 보면, “螺鈿花形平函 …… 螺鈿梳函 1쌍, 螺鈿書案 1, 螺鈿書幾 1 …… 螺鈿鞍轡 1쌍이 있다.”⁵⁶⁾ 나전으로 만든 화형함, 빗함, 서안, 책궐, 안장 등 다종다양하였다. 1015년(장화 4) 일본의 학승 源信은 송 철종의 元祐(1086~1094) 연간이나 휘종의 政和(1111~1117) 연간에 송나라에 와서 활동했는데,⁵⁷⁾ 이때 중국 天臺山 大慈寺에 螺鈿蒔繪函과 나전안장 등을 보내기도 했다.⁵⁸⁾ 이를 통해 북송 말기가 되면 중국에는 일본에서 진상하거나 수입한 다종다양한 나전 칠기가 있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중국 나전칠기는 일본의 영향을 받아 제작되었다고 보았고, 정교한 일본 나전칠기들은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품질과 수준에서 현저하게 우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 나전이 수입되면서 ‘螺鈿’이라는 명칭이 송나라 사회에서도 널리 사용되기 때문인지 이때부터 ‘螺鈿’이라는 단어와 관련된 문헌 기록이 많이 발견된다.

(1) “듣자하니 螺鈿을 茶器로 삼아 ‘모든 일은 돈독하고 간결하며 소박해야 한다. 안 그러면 천벌을 받는다.’고 말했다.”⁵⁹⁾

(2) “사람이 앉으려 안에 들어갈 때 주칠나전병풍을 지나서 간다.”⁶⁰⁾

56) 脱脱, 『宋史』 491卷, 「外國7·日本國傳」, 北京: 中華書局, 1985~1986, 14136面.

57) 方勺(1066~1142 後), 『泊宅編』 第3卷, 北京: 中華書局, 1997, 116面. “所載皆元祐迄政和間朝野舊事.”

58) 方勺, 『泊宅編』 3卷, 北京: 中華書局, 1997, 16面. “螺填器, 本出倭國, 物象百態, 頗極工巧, 非若今市人所售者.”

59) 蘇籀(1091~1164), 『欒城遺言』, 『景印文淵閣四庫全書』 864卷,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175面. “公聞以螺鈿作茶器者, 雲: ‘凡事要敦, 簡, 素, 不然天罰.’”(韓倩, 「文獻中的工藝史: 宋代漆器兩例」, 『裝飾』, 清華大學美術學院, 2011, 89~91面. 재인용).

이를 통해 나전 기법은 이미 작은 찻그릇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병풍을 제작할 때에도 적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나전칠기도 당시 황실의 주목을 받았다. 송 휘종(1082~1135) 때에는 나전과 함께 구슬과 보석으로 함을 장식하거나,⁶¹⁾ 거문고를 번쩍이는 나전함에 넣어두기도 하였다.⁶²⁾

이처럼 휘종황제가 나전칠기를 애호함에 따라 이후 상류사회가 다투어 이를 따라 하면서 나전의 사용이 널리 유행하게 되었다. 휘종 당시 재상이었던 王黼(1079~1126)는 교묘한 말로 아첨을 하여 관직이 한꺼번에 8품이 승격되었는데, 이러한 사례는 송나라 개국 이래 유일무이한 것이다.

“王黼는 재상으로서 극히 화려하고 사치스럽다. 기암괴석을 쌓아 10여 장으로 20여 곳에 산을 만들었는데, 여러 가지가 달랐다. 예를 들어 螺鈿으로 전각을 장식하여 기둥이나 문이나 창문 등이 모두 螺鈿이었다.”⁶³⁾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수놓을 ‘黼’자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화려한 옷을 입었을 뿐 아니라 집안 또한 기암괴석으로 사치스럽게 장식하였다. 특히 건물의 기둥이나 문과 창문 등 세부까지 모두 나전으로 장식하였다. 특히 휘종 말 1124년 사신 徐兢이 고려를 방문하여 고려의 “螺鈿 일은 세밀하여 귀하다.”고 평가하였다.⁶⁴⁾ 이처럼 북송대에는 귀족들의 일상 기물이나 건축 및 실내 인테리어까지 나전칠기를 널리 사용하였고, 그들은 고려 나전의 특징까지도 파악하고 있었다.

금의 침입으로 휘종과 흠종이 잡혀가고 송나라 조정은 남쪽으로 천도하여 남송을 건립하였다. 어지러운 사회 분위기 때문인지 남송의 高宗(1107~1187) 초기에는 검박

60) 胡銓(1102~1180), 『澹庵文集』 2卷, 「經筵玉音問答」, 『景印文淵閣四庫全書』 1137卷,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26面. “坐者乃入內, 取通朱螺鈿屏風至.”

61) 毛晉, 『二家宮詞』 上卷, 『景印文淵閣四庫全書』 1416卷,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708面. “螺鈿珠璣寶盒妝.”

62) 洪遵(1120~1174), 『翰苑群書』 12卷, 「翰苑遺事」, 『景印文淵閣四庫全書』 595卷,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409面; 같은 책, “上所常禦者 有 紫青石方硯一, 琴光螺鈿匣一.”(範淑英, 「古意: 一種藝術風格的美術考古」, 『裝飾』, 西安美術學院, 2011. 재인용).

63) 朱勝非(1082~1144), 『秀水閒居錄』, “王黼作相, 窮極華侈, 累奇石為山, 高十餘丈, 便作二十餘處, 種種不同, 如螺鈿閣子, 即梁柱, 門窗, 什器, 皆螺鈿也.”

64) 徐兢, 『宣和奉使高麗圖經』 23卷, 雜俗 土產條. “而螺鈿之工細密可貴.”

을 실천하며 나전칠기는 음란한 물건이라며 남겨서는 안 된다고 했다.⁶⁵⁾ 또 소박한 풍조를 확산시켜 백성을 구제하고자 공물로 바친 나전칠기를 불태우도록 명령했다.⁶⁶⁾

예컨대 1128년(건염 2) 남송 고종은 江蘇省 鎮江府에 머문 적이 있는데, 당시 지방 관리는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나전칠기를 바쳤다. 하지만 고종은 사치풍조를 없애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물로 바친 나전칠기를 없애라고 명령했다.

(1) “徐康國은 浙漕로 臺州에서 나전 의자와 탁자를 진상하였는데 폐하는 즉시 소각을 명령하였다. 지금까지 사방에서 성덕을 낭송하고 있다.”⁶⁷⁾

(2) “처음에 溫州와 杭州의 조공품은 鎮江에 머물렀다. 그중에는 약간의 나전 의자와 탁자가 있었다 …… 황제는 그것이 사치스럽다며 훼손하라고 명령을 내렸다.”⁶⁸⁾

(3) “高宗은 鎮江으로 이동하였다. 이전에 본부에서 溫州와 杭州에서 공물을 보냈는데 나전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황제는 그 기묘한 솜씨를 싫어하여 知府 錢伯言에게 그것을 망가뜨리도록 하였다.”⁶⁹⁾

이렇게 남송 고종은 집권 초기에는 검소를 실천하여 나전 탁자나 의자 등을 소각하거나 훼손토록 하였다.⁷⁰⁾ 하지만 그 또한 나전칠기에 대한 애정을 억제하지 못했다. 집권 후기인 1151년(소흥 21) 고종이 항주에 있던 張循의 저택에 도착하였을 때 진귀한 보물을 대량으로 선물로 받았는데 그 중에는 ‘나전함 10개’가 포함되어 있었다.⁷¹⁾

이와 같이 南宋대에 나전칠기는 방물과 특산물로서 황제에게 진상하는 것이 항례화되어 있었다. 남송 高宗대인 1127년(정강 2)에는 진강부의 軍資監이 있는 杭州와

65) 朱勝非, 앞의 책, “淫巧之物, 不可留.”

66) 朱勝非, 앞의 책, “去華崇實, 還淳返樸, 開中興而濟斯民.”

67) 『建炎以來朝野雜記』, “徐康國為浙漕, 進臺州螺鈿椅桌, 陛下(高宗)即命焚之. 至今四方吹誦聖德.” (張飛龍, 앞의 논문, 38면. 재인용).

68) 李心傳, 『建炎以來系年要錄』 11卷, 『景印文淵閣四庫全書』 325卷,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133면. “初, 溫, 杭二州上供物寄留鎮江. 其間椅桌有以螺鈿為之者 …… 上惡其靡, 亟命碎之通衢.”

69) 盧憲, 『嘉定鎮江志』 21卷, 江蘇: 江蘇大學出版社, 2014, 67면. “建炎戊申, 高宗幸鎮江. 先是本府寄留溫, 杭二州上貢物有以螺鈿為之者, 帝惡其奇巧, 令知府錢伯言毀之.”

70) 周輝(1126~?), 『清波雜誌·思陵儉德』 1卷, 北京: 中華書局, 1994, 157면. “高宗踐阼之初, 躬行儉德 …… 又嘗詔有司毀棄螺填倚桌等物, 謂螺填淫巧之物, 不可留.”

71) 周密(1232~1298), 『武林舊事』, 杭州: 西湖書社, 1981, 37면.

溫州에서 나전으로 만든 의자와 탁자 및 발판 36건을 기탁한 사례가 있다.⁷²⁾ 그와 함께 蘇州의 평강부에서도 나전칠기를 진상한 기록이 보인다. 이중 馬天驥는 남송 理宗연간(1224~1264) 당시 평강의 운송사였는데, 그가 황제에게 나전버들고리를 진상하였던 기록이 여러 곳에 보인다.

(1) “여러 권세자들이 각각 침방의 물건을 바쳤는데 …… 당시 馬天驥는 平江에 운송사로 가기 위해 나전으로 만든 가는 버들고리 백 개, 금과 은으로 도금한 자물쇠 백 개, 錦으로 만든 비단 보자기 백 개를 바쳤는데, 모두 백만 원을 썼다.”⁷³⁾

(2) “馬天驥는 平江의 운송사가 되어 나전버들고리 백 개를 혼자 바쳤는데 理宗은 이를 매우 기뻐했다.”⁷⁴⁾

이를 통해 馬天驥가 나전버들고리 100개와 함께 여단을 수 있는 금은 자물쇠 100개를 비단보자기 100개에 담아 진상하였고, 이를 받은 이종이 크게 기뻐했음이 확인된다. 당시 臺州, 溫州, 杭州, 蘇州 등지에서 황제에게 나전칠기를 진상할 만큼 이 지역이 나전칠기의 중요 생산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이 때문인지 이 지역에서는 공물을 바치는 이외에도 귀족들에게 나전칠기를 뇌물로 바친 것도 성행하였다. 예컨대 臨安(현 杭州)의 楊靖은 지방 관리로 임기를 마칠 때가 되자 직위의 연장을 위해 해당 지방에서 정교한 난방용 螺鈿火櫃 3개를 만들어 당시 권력자였던 蔡京과 童貫에게 뇌물을 바치려 했다. 楊靖은 자기 대신 현지인 陳六舟의 아들인 十一郎을 당시 수도인 汴梁(현재의 開封)에 파견하였다. 그 결과 十一郎은 미리 만들어둔 螺鈿火櫃 3개를 가져가서 그중 1개만 궁중에 진상했고, 나머지 2개는 汴梁에 위치한 相國寺 시장에 내다 팔아서 많은 수익을 올렸다.⁷⁵⁾ 이를

72) 徐松, 『宋會要輯稿』, 上海: 古籍出版社, 2014, 84면. “靖康2年, 鎮江府軍資庫杭州, 溫州寄留上供物, 有螺鈿椅桌並腳踏子三十六件.”

73) 周密, 『癸辛雜識』, 北京: 中華書局, 1997, 154면. 『癸辛雜識』, 「公主添房」, “周漢國公主下降, 諸閭及權貴各獻添房之物 …… 時馬方山天驥為平江發運使, 獨獻羅鈿細柳箱籠百只, 並鍍金銀鎖百具, 錦袱百條, 共實以芝楮百萬.”

74) 田汝成(1503~1557), 『西湖遊覽志』 23卷, 北京: 中華書局, 1958, 412면. “馬天驥為平江發運使, 獨獻螺鈿柳箱百支, 理宗為之大喜”. (張飛龍, 앞의 논문, 38면. 재인용).

75) 洪邁, 『夷堅志』 18卷, 北京: 中華書局, 1981, 157면. “臨安人楊靖者, 將滿秩. 造螺鈿火櫃三合, 窮極

통해 나전칠기는 뇌물로 바칠 정도로 그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南末의 대신인 卨涇(1159~1226)은 당대의 권신으로 널리 알려진 韓侂胄에게 아첨하기 위해 ‘螺鈿髹器’를 뇌물로 주었다는 기록 또한 마찬가지이다.⁷⁶⁾

理宗황제 때의 또 다른 사례로는 1262년(경정 3)에 郴州의 知府를 맡았던 王櫛과 관련된 기록이 주목된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던 郴州에서 宰相 賈似道の 공덕을 칭송하는 10가지 내용을 도안으로 삼아 나전병풍 10개를 만들어 賈似道에게 뇌물로 바쳤다.⁷⁷⁾ 賈似道는 병풍에 매우 만족하여 홀에 진열해 두고 연회 때마다 초대 손님에게 자랑했다고 한다. 이 병풍에는 인물의 이야기와 같은 복잡하고 서사적인 내용을 화면 가득 채워져 있었으며, 그 내용은 이후 ‘圖賈相盛事十項’이라는 회화작품의 도상으로 확립될 정도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⁷⁸⁾ 이를 통해 나전은 단순한 형태와 쓸모를 지닌 일상용품 뿐 아니라 복잡하고 정교한 회화적인 내용을 표현된 병풍까지 제작할 정도로 남송대 나전칠기의 기술이 상당히 숙련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남송의 도성인 臨安은 무역이 번영하고 상인들이 운집하여 시장이 발달했으며 각양각색의 나전칠기가 상품으로 판매되었다. 특히 臨安에서 제작한 나전칠기는 국가에 공물을 바치는 것 이외에 시장에도 진열되어 일반인이 자주 볼 수 있었다. 이 때문에 13세기 후반 남송 말부터 원대 초에 활동한 周密이 편찬한 『百寶總珍集』에는 이 시절 臨安을 추억하면서 이곳 상인이 취급한 각종 상품 중 ‘나전함 10개’를 언급하였다.⁷⁹⁾ 또한 西湖老人이 쓴 『繁勝錄』에도 臨安의 시장에서 ‘螺鈿交椅, 螺鈿投鼓, 螺鈿鼓架, 螺鈿翫物, 時樣漆器’ 등을 판매한다고 써 있다.”⁸⁰⁾ 결국 남송대 나전칠기 상품들은 소품인 문방구를 비롯하여 규모가 큰 가구나 장식적인 병풍

精巧。買土人陳六舟，令其子十一郎齋入京，以一供禁中，一獻老蔡，一與貫，以營再任。子但以一進禦，而貨其二於相國寺，得錢數百千。”

76) 葉紹翁(1194~1269), 『四朝聞見錄』, 北京: 中華書局, 1989, 106면.

77) 胡漢, 『郴州志』 2卷, 「秩官表上」, 明萬曆4年(1576)刻本影印, 上海: 上海書店, 1962, 91면. 王櫛는 理宗 景定 3년(1262)에 침주지부를 맡았다.

78) 周密, 『癸辛雜識·別集』, 『四庫筆記』, 上海: 古籍出版社, 1991, 155~156면. 「鈿屏十事」 중은은 “王櫛, 字茂悅, 號會溪. 初知郴州, 就除福建市舶. 為螺鈿桌面屏風十副, 圖賈相盛事十項, 各系之以贊以獻之, 賈大喜, 每宴客必設於堂焉.”(常亦揚, 「螺鈿妝成翡翠光」, 『藝術品』, 榮寶齋, 2017, 107면. 재인용).

79) 周密, 『武林舊事』 9卷, 『景印文淵閣四庫全書』 590卷,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279면.

80) 西湖老人, 『繁勝錄』, 『宋史資料萃編』 3卷, 臺北: 文海出版社, 1981, 18면.

등 다방면에서 제작되었고, 이것을 시장에서 판매할 정도로 널리 보급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후 元대에 이르면 전쟁이 빈번해지고 지배층인 몽고족의 특성상 한문으로 기록한 문헌이 현저하게 적어지는 경향을 보이지만 나전과 관련된 기록은 여전하다. 원대 문학가인 陶宗儀의 『南村輟耕錄』을 보면 남송 고종 때 내부독이 사용한 나전함을 언급하고 있다.⁸¹⁾ 원나라 시인 尹廷高는 〈鈿螺椅子 象牙床〉라는 시구를 써서 당시 사용하던 나전의자를 칭찬하였다. 원나라 시인 揭傒斯는 나전장인인 黃生이 제작한 나전과 금은을 감입한 ‘文螺錯編爛’을 노래하였다.⁸²⁾ 여기에서 ‘文螺’는 나전 상감 기법으로 무늬를 장식한 것을 가리키고, ‘編爛’은 금은을 상감한 기법을 가리킨다.⁸³⁾ 王櫛는 1262년(景定 3)에 침주지부를 맡았던 인물이어서, 이러한 관련 기록을 통해 원나라의 나전장 黃生은 나전과 금은 등을 한 기물에 함께 감입하여 오색찬란한 효과를 지닌 작품을 만들었고, 이것을 본 시인이 그 아름다움을 시를 읊었음을 알 수 있다.

元대의 나전 제작이 정교했기 때문에 후세의 문헌에서도 원대 나전 칠기에 관한 기록이 다수 남아 있다. 원말 명초의 골동품 수집가로 유명한 曹昭는 1388년(홍무 21)에 편찬한 『格古要論』에 전세되어 온 원나라 나전칠기의 우수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또 1459년(천선 3)에 王佐가 교감한 『新增格古要論』의 「螺鈿」에서는 원대 나전칠기의 상황을 더욱 심도 있게 표현하고 있다.

(1) “구작[舊做]과 宋 內府의 물건은 모두 단단한 칠이거나 동선을 박은 것이 매우 좋다. 江西省 吉州府에서 새로 만든 칠기는 豬血와 桐油를 재료로 많이 쓰면 단단하지 않고 상하기 쉽다.”“螺鈿器, 宋器는 모두 단단한 칠에 동선을 박은 다음에 다시 나전으로 장식하는데 그 색깔이 섬세하다.”⁸⁴⁾

81) 陶宗儀(1329~1412년 경), 『南村輟耕錄』 23卷. “匣螺鈿(宋高宗內府督鈿匣)” <http://guoxue.htpcn.com/html/book/CQILKOV/TBAZTBMEIL.shtml>.

82) 揭傒斯著, 李夢生標校, 『揭傒斯全集』, 「贈髹者黃生」,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76面.

83) 黃成著, 楊明注, 王世襄編, 『髹飾錄』,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4, 153面. ‘編爛’ 第12條.

84) 曹昭, 『格古要論』, “舊做及宋內府中物俱是堅漆, 或有嵌銅線者甚佳. 江西吉州府新做者, 多用作料灰乃豬血和桐油, 不堅易壞.” “螺鈿器, 宋器皆於堅漆上嵌銅線, 然後鑲以螺甸, 其花色細緻可玩.” (鄧之誠, 『骨董瑣記全編』 上卷, 北京: 中華書局, 2008, 198面. 재인용)

(2) “나전기는 江西省 吉安府 廬陵縣에서 나왔다.” “원나라 때 富家은 연월을 막론하고 조칠을 단단하게 하고 인물은 섬세하고 사랑스러웠다.”⁸⁵⁾

위 (1)에서 언급하고 있는 옛 작품은 원나라 나전칠기를 가리키고, 그와 함께 송나라 내부에서 제작한 작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들 송원대 나전칠기 작품은 칠의 표면이 단단하며, 동선을 박았으며 자개를 장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주목되는 점은 이러한 송원대 나전칠기들과 江西省에서 제작한 칠기를 비교하여 돼지피와 오동나무 기름을 사용한 것은 견고하지 않아 손상되기 쉽다는 것이다. 원대에 부유한 집안에서는 조칠과 함께 인물 표현까지 섬세하게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하지만 현재 송원대 나전칠기 유물에서는 이 기록에 부합되는 유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러한 특징은 14세기 말 고려 나전칠기에서 흔히 발견되는 경향이어서 이것은 원 간섭기에 고려 나전칠기가 원 사회에 유입되어 그것을 설명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하지만 본고는 기록을 위주로 분석하는 것이어서 한중 나전칠기 유물의 기술이나 양식 특징과 같은 조형적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에 의해 나전칠기의 기원과 이후 전개와 관련한 문헌과 내용은 시기별로 달라지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商周 시기의 ‘蜃器’는 나전의 재료를 의미하여 나전칠기의 전신으로서 칠기 위에 장식되었다. ‘蜃’은 글자 그대로 조개류이고, ‘蜃器’는 조개류로 장식된 기물이었다. 商周 시기 문헌에는 ‘蜃器’를 제기로 사용했고 ‘掌蜃’이라는 관서를 설치하고 관원을 두어 관리했다. 이렇게 문헌 기록을 통하여 알려진 周나라 제사에 사용된 ‘蜃器’나 고고학적인 발굴로 출토된 의례용 악기인 ‘鼉鼓’ 등은 조개껍질을 박은 칠기로서 후대인들이 주석한 나전칠기에 대한 정의에 부합되는 것이다. 그러나 西周

85) 王佐, 『新增格古要論』, 「螺鈿」, “螺鈿器出江西吉安府廬陵縣.” “元朝時富家不限年月, 做造漆堅而人物細可愛.” (鄧之誠, 앞의 책, 198면 재인용).

가 멸망하면서 예약제도가 사라지고 ‘蜃器’와 그 생산기구나 관리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실제 기능이 없어져 漢代에 이 기술은 잊혀졌다.

둘째, 唐대 문헌에서는 ‘鈿’과 관련된 어휘가 대량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鈿’과 관련된 ‘鈿鏡’·‘鈿貝鏡’·‘寶鈿鏡’·‘寶鈿帶’ 등의 기록은 모두 나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 것이다. 특히 756년(天平 勝寶 8) 일본의 光明皇后는 聖武天皇이 남긴 진귀한 보물을 東大寺에 봉납하였고 그것이 ‘國家珍寶帳’에 기록되었는데, 여기에는 ‘螺鈿紫檀琵琶’나 ‘螺鈿紫檀阮咸’이라는 유물과 함께 正倉院에 소장되어 현존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까지 최초로 ‘螺鈿’이라는 명칭이 명확하게 적시된 문헌 기록이다. 이러한 문헌 기록과 현존 유물에 의해 당나라 때에는 ‘螺鈿’이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宋元대에는 ‘螺鈿’이라는 단어가 각종 저술이나 문집에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송원대 문헌에서는 조개껍질과 칠기를 결합한 공예를 ‘螺鈿’ 또는 ‘螺填’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이런 문헌을 보면 宋元대에 나전 기술이 상당히 성숙했고 臺州·溫州·杭州·蘇州 등은 모두 당시 나전칠기의 중요한 생산지였다. 나전칠기는 작은 문방구를 비롯하여 규모가 큰 가구나 회화적인 병풍까지 등장해 소품 위주의 일상 기물이라는 한계를 벗어나 실내 인테리어까지 확장되었다. 한편, 나전칠기의 사용계층은 황실이나 고관 귀족 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저변화되어 시장의 상품으로 판매될 정도였다.

이처럼 본고에서는 고대부터 원대까지의 문헌에서 ‘나전’의 기원이나 ‘나전칠기’의 기법적 발전과 전개를 엿볼 수 있는 기록을 찾아 정리하여 시기별 변화양상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문헌 기록은 중국의 명청대와 한국의 조선시대에 더욱 많은 빈도가 확인되며 양자간의 교섭도 빈번해지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본고에서 파악한 나전의 기원과 관련한 고고학적 출토 유물이나 각급 박물관에 유존하는 전세품을 조형적으로 분석하는 한중 나전칠기의 양식적인 비교 또한 다음으로 미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歐陽修, 『新唐書』, 北京: 中華書局, 1975
- 鄧之誠, 『骨董瑣記全編』, 北京: 中華書局, 2008
- 羅願, 『爾雅翼』, 景印文淵閣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 令狐德棻, 『周書』, 北京: 中華書局, 1971
- 盧憲, 『嘉定鎮江志』, 江蘇: 江蘇大學出版社, 2014
- 李林甫, 『唐六典』, 北京: 中華書局, 2005
- 李昉, 『文苑英華』, 北京: 中華書局, 1966
- 李心傳, 『建炎以來系年要錄』, 『景印文淵閣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 毛晉, 『二家宮詞』, 『景印文淵閣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 毛晃增注, 『增修互注禮部韻略』, 『景印文淵閣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 方勺, 『泊宅編』, 北京: 中華書局, 1997
- 司馬光, 『類編』, 『景印文淵閣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 徐兢, 宋乾道三年刻本, 『宣和奉使高麗圖經』 民國景宋本, 北京: 故宮博物院, 1932
- 徐夢莘, 『三朝北盟會編』, 『景印文淵閣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 徐松, 『宋會要輯稿』, 上海: 古籍出版社, 2014
- 蘇籀, 『欒城遺言』, 『景印文淵閣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 葉紹翁, 『四朝聞見錄』, 北京: 中華書局, 1989
- 王欽若, 『冊府元龜』, 「帝王部·節儉」, 北京: 中華書局, 1982
- 姚汝能, 『安祿山事蹟』,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3
- 圓仁, 『入唐求法巡禮行記』,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 佚名, 『原本廣韻』, 『景印文淵閣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 , 『天水冰山錄』, 『叢書集成新編』,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4
- 田汝成, 『西湖遊覽志』, 北京: 中華書局, 1958
- 周公旦, 『周禮』, 欽定禮記義疏, 景印文淵閣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 周密, 『癸辛雜識』, 北京: 中華書局, 1997
- , 『癸辛雜識·別集』, 『四庫筆記』, 上海: 古籍出版社, 1991
- , 『武林舊事』, 杭州: 西湖書社, 1981
- 周輝, 『清波雜誌·思陵儉德』, 北京: 中華書局, 1994
- 中華書局編輯部點校, 『全唐詩: 增訂本』, 北京: 中華書局, 1999
- 脫脫, 『宋史』, 北京: 中華書局, 1985
- 許慎, 『說文解字』, 北京: 中國書店, 1989
- 胡銓, 『澹庵文集』, 『景印文淵閣四庫全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7

洪邁,『夷堅志』,北京:中華書局,1981

洪邁,『翰苑群書』,『景印文淵閣四庫全書』,上海:上海古籍出版社,1987

黃成著,楊明注,王世襄編,『髹飾錄』,北京:中國人民大學出版社,2004

敦煌研究院,『敦煌莫高窟供養人題記』,北京:文物出版社,1986

張子才,『文言文常見名物制度詞語匯釋』,南京:鳳凰出版社,2013

黃永武,『敦煌寶藏』,臺北:文新豐出版公司,1985

鄧之誠,『骨董瑣記全編』上卷,北京:中華書局,2008

金三代子,「文獻으로 본 나전칠기의 始原」,『考古歷史學志』16, 고고역사학회, 1993

김은정,「고려시대 나전칠기의 문양 및 제작기법 연구」,『강좌미술사』40, 한국미술사연구소, 2013

李宗碩,「三國 및 統一新羅時代의 木漆工藝」,韓國의 美 24『木漆工藝』,중앙일보·계간미술, 1985

_____,「韓國 古代 漆器 研究-三國時代 및 統一新羅時代를 중심으로」,단국대 석사학위논문, 1983

李瓏姬,「朝鮮時代 螺鈿漆器 研究」,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1993

조현경,「고려시대 나전칠기에 관한 연구」, 동아대 석사학위 논문, 2000

최영숙,「고려시대 나전칠기 연구」,『미술사학연구』15, 한국미술사학회, 2000

_____,「高麗時代 螺鈿漆器 研究」,홍익대 석사학위논문, 1998

高橋隆博·韓昇,「唐代與日本正倉院의螺鈿」,『學術研究』,廣東省社會科學聯合會, 2002

劉志安,「唐朝吐蕃佔領沙洲時期的敦煌大族」,『中國史研究』,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1997

陸錫興,「名物新證」,『南方文物』,江西省文物考古研究院, 2008

範淑英,「古意:一種藝術風格的美術考古」,『裝飾』,西安美術學院, 2011

_____,「唐代螺鈿鏡的定名及其工藝內涵」,『考古與文物』,陝西省文物考古研究所, 2014

常亦揚,「螺鈿妝成翡翠光」,『藝術品』,榮寶齋, 2017

殷璋璋,「記北京琉璃河遺址出土的西周漆器」,『考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 1984

張飛龍,「中國硬木螺鈿鑲嵌工藝溯源」,『中國生漆』,中華全國供銷合作總社西安生漆塗料研究所, 2011

張飛龍·賀娜·宋瑞雪·李豔·任紅豔,「先秦古建築髹飾藝術文化記憶管窺」,『中國生漆』,中華全國供銷合作總社西安生漆塗料研究所, 2020

張永山,「螺鈿起源試探」,『華夏考古』,河南省文物考古研究所, 1989

趙靜蓮,「敦煌疑難名物詞語考釋五則」,『中國典籍與文化』,教育部全國高等院校古籍整理研究工作委員會, 2012

- 周全南,「螺鈿源流」,『故宮博物院院刊』,北京故宮博物院,1981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北京市文物工作隊琉璃河考古隊,「1981—1983 年琉璃河西周燕國墓地發掘簡報」,『考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1984
- 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山東工作隊,「滕州前掌大商代墓葬」,『考古學報』,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1992
- 韓倩,「文獻中的工藝史:宋代漆器兩例」,『裝飾』,清華大學美術學院,2011
- 湖州市飛英塔文物保管所,「湖州飛英塔發現一批壁藏五代文物」,『文物』,文物出版社,1994
- 洪石,「鼉鼓逢逢:滕州前掌大墓地出土“嵌蚌漆牌飾”辨析」,『考古』,中國社會科學院考古研究所,2014

The Origin and Development of Mother of Pearl Lacquerware from Chinese Ancient Literature

Peng, Qian-xin · Jang, Kyung-hee

Since ancient times, there has been a profound integration between Korean mother of Pearl lacquerware and Chinese mother of Pearl lacquerware. Through various phenomena, it is not difficult to find that in the process of exchanging needed goods, the mother of Pearl lacquerware technology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integrated and closely connected with each other. At present, the research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usually refers to official, personal works, anthologies and other documents. Scholars of the two countries mainly start from their own materials and conduct research from their own perspectives. However, in order to study the mother of Pearl lacquerware in this period more carefully,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literature of the two countries respectively. Therefore, while referring to the historical materials of South Korea and China, it makes a more detailed induction and integration, and makes comprehensive use of them.

First of all, mother of Pearl originated early in China, which can be seen in the Xia(夏) Dynasty. The ‘Shen-Qi(蜃器)’ recorded in the literature of the Zhou(周) Dynasty is the predecessor of the mother of Pearl lacquerware.

Second, there were many records of ‘Jian(鑑) mirror’, ‘Dian-Bei(鈿貝) mirror’, ‘Bao-Dian(寶鈿) mirror’ and ‘Bao-Dian belt’ in the Tang Dynasty. These records show that the “Bao Dian” has an inseparable relationship with the mother of pearl lacquerware.

Third, in the Song(宋) Dynasty and Yuan(元) Dynasty, the word ‘Luo-dian(螺鈿)’ appears in many works. It can be seen from the records of the Song Dynasty that the mother of Pearl lacquerware was mass produced and popularized in China and sold on the market.

Based on the historical data from ancient China to the Yuan Dynasty, this paper analyzes and arranges the relevant contents of the shell made of the mother of Pearl lacquerware, and reveals the origin of mother of Pearl lacquerware.

Key Words : Chinese Ancient Literature, Mother of Pearl Lacquerware, Origin,
She-Qi, Bao-Dian, Luo-dian